

2018년 2월 21일, 표선면 세화3리 김승현 씨 댁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.

김승현(남, 1941년생, 표선면 세화3리)

- 줄거리: 최씨가 도깨비 참봉을 정성들여 모시고는 부자가 되었다. 도깨비 참봉은 최씨 집 안의 모든 일이 잘되게 도와주었다. 모신지 삼 대째에 자식들이 도깨비 참봉에게 밥을 올리는 것을 깜박하고 밭에 갔다가 집으로 와보니 화가난 도깨비 참봉이 집에 불을 지르고 있었다.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잘 모시다가 차차 시대가 지나면서 모시지 않게 되자 후손들은 망했다.

[조사자] 도체비 얘기는 들어난 거 잊어마씀?

[제보자] 옛날부터 도체비는 사람신디 장난을 쳐도 사람을 살리고, 귀신은 사람은 죽인덴 헷어. 혹부리영감이나 도체비 방망이 잇잖아게. 게난게 도체비는 사람을 도와주고 구신은 사람을 죽인덴 허는 거주.

우리 동네 상동에 최씨가 있어. 그 양반이 돌아가신 지가 한 오십년이 넘었인디. 그 하르버지가 그때만 해도 다 못살던 시절 아니라게. 도체비를 모시면 부자가 됤다는 말을 듣고, 도체비를 모셨어. 도체비를 모시는 방법이 뭐냐면 수수떡, 빨간색.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] 도체비를 모셔 오젠 하믄 뜰에 밤 열두시나 한시에 도체비를 참봉, 참봉이라고 한다고. 도체비를 부를려면

“참봉님, 참봉님.”

한다고.

근데 부른다고 당장 나오는 게 아니거든게. 그 하르버지가 그런 거를 한 십오 일 정도 정성을 들였다고 아닌게 아니라 참봉이

“왜 불러!”

하고 나온 거라이.

게난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방 하나에 모셨다고. 그렇게 도체비를 모셨는데 그 렇게 부자가 돼엇어. 그때는 비료가 엉어서 축분 같은 걸로 농사를 했거든.

그 너른 밧디 보며는 그 참봉이 부하들을 부려가지고 밤에는 소를 밧 가득히 몰아오는 거라. 뚱을 쎄울라고.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도와줬어이. 그 사람네가 부자가 돼고. 삼 대째에 최문 공씨가 이 양반이 침술도 하고 이장도 헷인디 이

사람 때까지 완전 부자가 됨 거라.

[조사자] 아, 네.

[제보자] 근디 이 참봉을 모실라면은 아침에 밥을 해서 거기다 놓고 일을 가더래도 뜨거운 밥을 헷어. 세 끼를 꼭 했던 모양이라.

한 번은 사람들 품앗이허멍 일을 하는데 밥 올리는 것을 깜박한 모양이라이. 게난 막 급하게 집으로 와보니깐 참봉이 집에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. 겟 막 사정하고 헹 참봉을 모셨는데. 시대가 변하고 하니까 그 모시는 것을 못했거든. 아罵 헤도 도체비도 시대가 변해가니까 자기가 활동을 못한 거라.

최문 공씨 대에 와서 안 헤분 거라이. 그 모시는 것을. 거기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랐어. 거기 아들이 굉장히 영리해서 ○○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햇인디. 어느 날 정신이 이상하게 뛰어 불고 딸 둘도 정신 이상이 뛰었어. 하나는 어리목에 가서 죽고, 그 밑에 딸도 갑자기 아팡 밖에서 죽었어. 한꺼번에 망한 집안이라.

그런 전설이 잇고. 우리도 아는 전설이고.

[조사자] 예.

- 핵심어: 도체비(도깨비), 참봉, 최씨, 수수떡, 빨간색, 밥, 품앗이